

# 청년농 영농승계 실태와 주요 정책과제

## Current Status of Farming Succession to Young Farmers and Major Policy Tasks

### 신용광

Yong Kwang Shin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 주재창

Jae Chang Joo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 이소영\*

So Young Le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farming succession among young farmers and reviews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farming succession.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farming succession to young farm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186 graduate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who are engaged in farm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spondents' farming succession method had a high proportion of intra-family gift and inheritance (56.5%), and the reason for farming succession was mainly due to lack of farming ability due to aging of parents or grandparents (87.6%). Among the difficulties faced by young farmers in the process of farming succession,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difficulty was high in securing farmland, lack of investment in facilities and operating funds, lack of legal information on gifts and inheritance, and communication problems with parents. A plan to revitalize farming succe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we are seeking a way to stably hand over the agricultural base of older farmers to young farm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s for the succession of agricultural assets. Third, policy support is neede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arming succession. For example, expanding retirement income support for transferred farmers or strengthening support to promote succession to young farm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build a foundation such as consult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to solve problems that arise in farming succession within the family. Fifth, there is a need to review an effective farming succession plan by converting the management body into a corporation and distributing decision-making rights.

**Keywords:** Young farmers, Farming succession, Handover farmers

Received Sep. 9. 2024  
Revised Sep. 27. 2024  
Accept Sep. 30. 2024

\*Correspondence  
So Young Lee  
lsy2000@af.ac.kr

### 서론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65세 이상 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영농승

계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20년에는 55.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비중은 1990년 14.6%에



서 2020년에는 12천 호인 1.2%에 불과하여 농업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고령 경영주들은 5년~15년 이내에 영농현장에서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농지 소유 현황과 향후 10년간 은퇴농의 농지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75세 은퇴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118,562ha의 논과 167,834ha의 밭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런 고령농들의 농업기반을 어떻게 청년 농가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농가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원활한 영농승계를 목표로 후계농과 은퇴농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승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자 창업농에게는 농신보 특례보증 확대(5억 원까지) 및 자금공급 확대(시설자금 보증조건 완화(7억 원 한도), 청년창업농에 대한 2년간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최대 월 150만 원), 청년농 중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은퇴농가의 생활안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속적 추진, 은퇴농업인의 농지연금사업 확대 등이 있다.

외국에서도 원활한 영농승계를 정책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조기은퇴지원제도(ERS), 영국의 은퇴지원금(LSES), 프랑스의 제3자 경영이양지원제도, 미국의 TIP가 영농승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영이양지원사업은 기존 농업인이 승계를 목적으로 청년농을 고용하는 경우, 경영이양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국의 TIP는 환경보전프로그램인 CRP에 참여했던 농업인이 계약 종료 후 신규 진입농 등의 취약계층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임대하면 CRP 참여기간 동안 지급했던 월 지급금을 2년간 추가로 지급한다. 일본에서는 청년농 창업 생활자금의 지원만이 아니라, 농업의 법인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고용에 의한 창업농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은퇴농의 영농승계 결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영농승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농승계라는 것은 주로 농업 기반인 농지 및 농업용 자산의 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적 측면과 더불어 미래가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자산투자의 의사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적 정서와 가족의 합의, 영농기술의 문제 등 다른 사

회적, 기술적 요인도 영농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영농승계에 보다 유리한 농업경영체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체 유형 전환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방식은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면서도 권리관계의 명확화로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농업의 법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영농승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승계농의 영농승계 실태를 조사하고, 승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영농승계 촉진 정책 과제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186명을 대상으로 청년농 영농승계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영농승계 현황, 현재 시행 중인 영농정책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정책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세제지원정책, 직불제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영농기술 진수, 농업경영체 유형 전환, 영농승계 촉진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각도에서 영농승계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영농승계조사표를 모바일로 발송한 후에 186명의 결과를 회신받았다. 설문조사표는 크게 영농승계 현황, 현행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23년 10월 11일에서 15일까지 5일간 이고, 응답자수는 186명이 응답하였다.

## 분석결과

### 청년농 영농종사 현황

청년농의 영농종사 현황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주요 소득작목은 채소·과수·특용작목이 57명(30.7%), 축산 56명(30.1%), 식량작물 36명(19.4%), 유통·가공 30명(16.1%), 체험 등 7명(3.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은 남성이 141명(75.8%), 여성이 45명(24.2%)이었

**Table 1. Main income crop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Frequency	36	57	56	30	7	186
%	19.4	30.7	30.1	16.1	3.8	100.0

**Table 2. General status of young farmers by major income crop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Sex	Male	21(58.3)	44(77.2)	48(85.7)	24(80.0)	4(57.1)	141(75.8)
	Female	15(41.7)	13(22.8)	8(14.3)	6(20.0)	3(42.9)	45(24.2)
Age	20s	19(52.8)	33(57.9)	30(53.6)	18(60.0)	5(71.4)	105(56.5)
	30s	14(38.9)	17(29.8)	24(42.9)	9(30.0)	2(28.6)	66(35.5)
	40s	3(8.3)	6(10.5)	1(1.8)	3(10.0)	0(0.0)	13(7.0)
	Over 50s	0(0.0)	1(1.8)	1(1.8)	0(0.0)	0(0.0)	2(1.1)
Farming experience	Within 5 years	8(22.2)	9(15.8)	26(46.4)	8(26.7)	2(28.6)	53(28.5)
	6 years-10 years	26(72.2)	37(64.9)	27(48.2)	21(70.0)	5(71.4)	116(62.4)
	11 years-14 years	0(0.0)	5(8.8)	3(5.4)	0(0.0)	0(0.0)	8(4.3)
	Over 15 years	2(5.6)	6(10.5)	0(0.0)	1(3.3)	0(0.0)	9(4.8)
Parents' age	50s	19(52.8)	30(52.6)	18(32.1)	18(60.0)	5(71.4)	90(48.4)
	60s	13(36.1)	20(35.1)	34(60.7)	10(33.3)	1(14.3)	78(41.9)
	70s	3(8.3)	7(12.3)	3(5.4)	2(6.7)	1(14.3)	16(8.6)
	Over 80s	1(2.8)	0(0.0)	1(1.8)	0(0.0)	0(0.0)	2(1.1)
Farming area	Parents' hometown	31(86.1)	41(71.9)	42(75.0)	25(83.3)	5(71.4)	144(77.4)
	A non-native rural area	4(11.1)	13(22.8)	12(21.4)	3(10.0)	2(28.6)	34(18.3)
	A non-native city	1(2.8)	3(5.3)	2(3.6)	2(6.7)	0(0.0)	8(4.3)
Corporation	Individual	29(80.6)	68(89.5)	48(85.7)	3(42.9)	9(81.8)	157(84.4)
	Corporation	7(19.4)	8(10.5)	8(14.3)	4(57.1)	2(18.2)	29(15.6)
Registration of management organization	Yes	30(83.3)	55(72.4)	41(73.2)	4(57.1)	6(54.5)	136(73.1)
	No	6(16.7)	21(27.6)	15(26.8)	3(42.9)	5(45.5)	50(26.9)

으며, 연령은 10대가 105명(56.5%), 30대가 66명(35.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영농경력은 6년~10년이 116명(6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내가 53명(28.5%)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의 연령은 50대가 90명(4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조만간 은퇴를 고려하는 60대 이상도 96명(51.6%)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농의 영농지역은 부모연고지 고향이 144명(77.4%)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년농의 영농종사 경영체는 개인농장이 157명(84.4%)으로 법인 29명(15.6%)보다 많았으며, 본인 명의의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진 농가가 136명(73.1%)을 차지하였다.

### 청년농 경영승계(공동경작) 과정

경영승계과정을 경영권 승계 여부와 자산의 승계방식

그리고 영농승계 과정 및 애로사항에 대한 순으로 조사하였다. 청년농의 영농시작 형태는 부모농장을 도우면서 영농을 시작한 창업농이 112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구입후 경영을 시작한 창업농이 55명(29.6%)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현재 농장의 경영권 승계 여부는 부분승계가 127명(68.3%)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창농을 위한 법인취업이 24명(12.9%), 완전승계 22명(11.8%), 법인지분승계 8명(4.3%), 형제분임차관리 5명(2.7%)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자산의 영농승계방식은 가족내 증여 및 상속이 105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창농 후 농장구입이 52명(28.0%), 농업법인 참여 15명(8.1%)으로 조사되었으며, 제3자 농지승계도 14명(7.5%)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5).

**Table 3. The first form of farming**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First farming start form	Parent farm help	22(61.1)	26(45.6)	41(73.2)	19(63.3)	4(57.1)	112(60.2)
	Independent management after land succession	0(0.0)	5(8.8)	2(3.6)	2(6.7)	0(0.0)	9(4.8)
	Start management after purchasing farmland	14(38.9)	21(36.8)	10(17.9)	8(26.7)	2(28.6)	55(29.6)
	Particip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0(0.0)	1(1.8)	0(0.0)	0(0.0)	0(0.0)	1(0.5)
	Start after employment at an agricultural corporation	0(0.0)	4(7.0)	3(5.4)	1(3.3)	1(14.3)	9(4.8)

**Table 4.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Partial succession	28(77.8)	37(64.9)	38(67.9)	20(66.7)	4(57.1)	127(68.3)
	Full succession	0(0.0)	6(10.5)	9(16.1)	7(23.3)	0(0.0)	22(11.8)
	Brother's tenancy management	2(5.6)	0(0.0)	1(1.8)	1(3.3)	1(14.3)	5(2.7)
	Succession of corporate shares	4(11.1)	0(0.0)	2(3.6)	0(0.0)	2(28.6)	8(4.3)
	Corporate employment for farming	2(5.6)	14(24.6)	6(10.7)	2(6.7)	0(0.0)	24(12.9)

자산 승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은 가족내 증여·상속이 90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기관 차입 59명(31.7%), 장기임대차 23명(12.4%), 적립자금 및 농지매각 14명(7.5%)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경영승계 농장의 농지금액은 5억~10억 원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75명(40.3%)을 차지하였으며, 1억 원 미만의 응답자도 69명(37.1%)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승계 농장의 영농시설과 기계 등의 자산규모는 1억 원 미만이 77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5억 원 63명(33.9%), 5억~10억 원 25명(13.4%), 10억~50억 원 17명(9.1%), 50억 원 이상 4명(2.2%)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Table 8).

(조)부모의 영농승계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영농 능력 부족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163명(8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로의 이농계획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5명(8.1%)으로 조사되었다(Table 9).

영농 이양 이후 부모님의 생활비 확보 계획은 부분적으로 영농지속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124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로부터 생활비 충당 83명(23.7%), 농지매각 및 예적금 활용 55명(15.7%), 농지 임대후 임대료 수입 48명(13.7%), 경영이양직불금 등 정부지원금 40명(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생활비를 어느 하나

**Table 5. Farming succession method of asset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Asset succession method	Gifts and inheritance within the family	14(38.9)	30(52.6)	36(64.3)	21(70.0)	4(57.1)	105(56.5)
	Third party agricultural land succession	5(13.9)	4(7.0)	3(5.4)	2(6.7)	0(0.0)	14(7.5)
	Particip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7(19.4)	5(8.8)	3(5.4)	0(0.0)	0(0.0)	15(8.1)
	Purchase a farm after starting farming	10(27.8)	18(31.6)	14(25.0)	7(23.3)	3(42.9)	52(28.0)

**Table 6. Funding method for asset succession**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Funding method	Gifts and inheritance within the family	15(41.7)	22(38.6)	31(55.4)	18(60.0)	4(57.1)	90(48.4)
	Financial institution borrowing	11(30.6)	20(35.1)	15(26.8)	10(33.3)	3(42.9)	59(31.7)
	Savings funds and farmland sales	2(5.6)	6(10.5)	4(7.1)	2(6.7)	0(0.0)	14(7.5)
	Long term lease	8(22.2)	9(15.8)	6(10.7)	0(0.0)	0(0.0)	23(12.4)

**Table 7. Amount of farmland for management succession farm**

(unit: person, %)

Division	Less than 100 million	100 million~ 500 million	500 million~ 1 billion	1 billion~ 5 billion	More than 5 billion	Entire
Frequency(%)	69(37.1)	29(15.6)	75(40.3)	11(5.9)	2(1.1)	186(100.0)

**Table 8. Total assets of management succession farm**

(unit: person, %)

Division	Less than 100 million	100 million~ 500 million	500 million~ 1 billion	1 billion~ 5 billion	More than 5 billion	Entire
Frequency(%)	77(41.4)	63(33.9)	25(13.4)	17(9.1)	4(2.2)	186(100.0)

**Table 9. Reasons for (grandparents) parents' farming succession**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Reasons for farming succession	Lack of farming capacity due to aging population	32(88.9)	51(89.5)	49(87.5)	25(83.3)	6(85.7)	163(87.6)
	Abandonment of farming due to accident	1(2.8)	0(0.0)	1(1.8)	1(3.3)	0(0.0)	3(1.6)
	Urban migration plan	1(2.8)	5(8.8)	5(8.9)	3(10.0)	1(14.3)	15(8.1)
	Dying	2(5.6)	1(1.8)	1(1.8)	1(3.3)	0(0.0)	5(2.7)

에 의존하기 보다는 복수의 수단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응답이 많았다(Table 10).

영농승계과정에서의 애로요인별 장애 정도를 질문한 결과, 농지 구하기가 어려움, 시설설비 투자 및 운영자금 부족, 증여나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 부족, 부모님과 의사소통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농장경영 운영기술의 미숙, 경영 및 재배기술 상담 전문가 부족, 승계자 이외 자녀와의 유산 갈등, 지역주민과의 갈등, 사람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1).

영농승계과정에서 가장 힘든 애로사항에는 부모와의 의사결정, 생활방식의 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11명(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농기술과 지식 부

족으로 인한 애로문제가 34명(18.3%), 상속에 필요한 자금 부담과 상속세 납부문제가 28명(15.1%), 가족 형제간의 상속 자산 배분갈등 문제가 5명(2.7%)으로 응답하였다(Table 12).

### 청년창업농 지원 정책 평가

청년농 영농승계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먼저 지원정책별로 중요도와 충분성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영농승계 공제제도, 가족경영협약제도, 제3자 승계, 법인승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창업농의 영농승계를 위한 8가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별 중요도와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정책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중요도에서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느끼는 충

**Table 10. Parents' plan to secure living expenses after transferring farming (multiple response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Plan to secure living expenses	Partially sustain farming	24(35.3)	50(36.8)	37(33.9)	4(22.2)	9(47.4)	124(35.4)
	Use of deposit for sale of farmland	10(14.7)	22(16.2)	17(15.6)	3(16.7)	3(15.8)	55(15.7)
	Rental income after leasing agricultural land	10(14.7)	21(15.4)	13(11.9)	3(16.7)	1(5.3)	48(13.7)
	Living expenses from children	13(19.1)	31(22.8)	30(27.5)	4(22.2)	5(26.3)	83(23.7)
	Government subsidies such as management transfer direct payments	11(16.2)	12(8.8)	12(11.0)	4(22.2)	1(5.3)	40(11.4)

**Table 11. Degree of difficulties in the farming succession process**

(unit: person, %)

Division	Very much so	Yes	Normal	No	Not at all
Difficult to find farmland	61(32.8)	47(25.3)	47(25.3)	18(9.7)	13(7.0)
Insufficient facility investment and operating funds	87(48.0)	64(34.4)	26(14.0)	5(2.7)	4(2.2)
Lack of legal information on donations and inheritance	54(29.0)	72(38.7)	46(24.7)	8(4.3)	6(3.2)
Lack of farm management and operation skills	30(16.1)	59(31.7)	56(30.1)	22(11.8)	19(10.2)
Lack of management and cultivation technology consulting experts	31(16.7)	57(30.6)	50(26.9)	26(14.0)	22(11.8)
Problems communicating with parents	52(28.0)	53(28.5)	46(24.7)	25(13.4)	10(5.4)
Conflict of inheritance with children other than successors	17(9.1)	13(7.0)	54(29.0)	47(25.3)	55(29.6)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24(12.9)	34(18.3)	58(31.2)	37(19.9)	33(17.7)
Problem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arriage, socializing, etc.)	39(21.0)	41(22.0)	46(24.7)	35(18.8)	25(13.4)

**Table 12.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farming succession proces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Difficulties	Differences in decision-making lifestyles with parents	22(61.1)	45(59.2)	36(64.3)	3(42.9)	5(45.5)	111(59.7)
	Conflict of allocation of inherited assets between family brothers	1(2.8)	2(2.6)	1(1.8)	0(0.0)	1(9.1)	5(2.7)
	Financial burden required for inheritance, inheritance tax	7(19.4)	7(9.2)	13(23.2)	1(14.3)	0(0.0)	28(15.1)
	Problems with lack of information such as deterrent information	1(2.8)	4(5.3)	2(3.6)	0(0.0)	1(9.1)	8(4.3)
	Difficulties due to lack of farming technology and knowledge	5(13.9)	18(23.7)	4(7.1)	3(42.9)	4(36.4)	34(18.3)

분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정착장려금, 영농가업승계 공제, 원스탑종합지원, 농지취득임대 알선, 주거지 알선 정책은 상

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지만, 충분성이 낮다고 평가된 반면에, 교육연수, 경영이양직불제도, 공동체 교류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지만,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Table 13. Evaluation of support policy for young farmers' farming settlement**

Policy project	Importance		Sufficiency	
	Score	Evaluation	Score	Evaluation
Management transfer direct payment system for transferring farms	3.89	Low	3.15	High
Agricultural business succession deduction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4.33	High	2.89	Low
Training and education related to agricultural technology and management	4.17	Low	3.20	High
Introduction and mediation regarding acquisition or lease of farmland	4.21	High	2.75	Low
Settlement incentive (subsidy) support	4.47	High	2.88	Low
Introduction and mediation related to acquisition and rental of residential property	4.25	High	2.69	Low
Support for exchanges with mentors, existing resid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4.02	Low	2.97	High
One-stop comprehensive support for agricultural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funds	4.31	High	2.83	Low
average	4.21		2.92	

Note: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on a 5-point scale, with 'high' being indicated if it was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and 'low' being indicated if it was lower than the average.

**Table 14. Farming inheritance deduction amount after farm inheritance**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Inheritance deduction amount	Less than 500 million	35(97.2)	54(94.7)	48(85.7)	27(90.0)	7(100.0)	171(91.9)
	500 million~ 1 billion	1(2.8)	2(3.5)	7(12.5)	3(10.0)	0(0.0)	13(7.0)
	1 billion~ 1.5 billion	0(0.0)	0(0.0)	1(1.8)	0(0.0)	0(0.0)	1(0.5)
	1.5 billion~ 3 billion	0(0.0)	0(0.0)	0(0.0)	0(0.0)	0(0.0)	0(0.0)
	More than 3 billion	0(0.0)	1(1.8)	0(0.0)	0(0.0)	0(0.0)	1(0.5)

었다(Table 13).

영농승계 공제한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장 상속후 영농상속공제 금액은 5억 원 이하 응답자가 171명(91.9%)이고, 5억~10억 원 13명(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14).

농장상속이후 영농상속세 마련방법은 적립자금 92명(49.5%), 농지담보 21명(11.3%), 농지매각 9명(4.8%)으로 조사되었으며, 납부 안함 응답자도 64명(34.4%)으로 조사되었다(Table 15).

현행 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의견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78명(41.9%)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자 42명(22.6%)보다 많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66명(35.5%)을 차지하였다(Table 16).

농업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는 농장규모 확대

가 70명(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승계 활성화가 50명(26.9%), 법인화로 자산규모 확대가 26명(14.0%), 비농업과의 형평성 도모가 26명(14.0%), 기타 14명(7.2%)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7).

가족경영 또는 법인경영에 참여하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장경영에서 본인의 역할은 주도적으로 농장의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는 응답자가 103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장의 일부 담당이 46명(24.7%), 고용형태 및 노동력제공 형태로 농장 참여가 31명(16.7%)으로 조사되었다(Table 18).

농장경영에 참여한 대가의 수령방법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응답자가 77명(41.4%), 비정기적 69명(37.1%), 받지 않음 40명(21.5%)으로 조사되었다(Table 19).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대가의 연간 금액은 평균적으로

**Table 15. How to prepare farming inheritance tax after inheriting a farm**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How to prepare for inheritance tax	Not paying	12(33.3)	17(29.8)	22(39.3)	11(36.7)	2(28.6)	64(34.4)
	Accumulated funds	19(52.8)	27(47.4)	28(50.0)	16(53.3)	2(28.6)	92(49.5)
	Farmland collateral	4(11.1)	6(10.5)	5(8.9)	3(10.0)	3(42.9)	21(11.3)
	Farmland sale	1(2.8)	7(12.3)	1(1.8)	0(0.0)	0(0.0)	9(4.8)

**Table 16. Opinions on the current agricultural inheritance deduction amount**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Current inheritance deduction opinion	Current sufficient	10(27.8)	13(22.8)	8(14.3)	8(26.7)	3(42.9)	42(22.6)
	Shortage	12(33.3)	22(38.6)	35(62.5)	8(26.7)	1(14.3)	78(41.9)
	I don't know	14(38.9)	22(38.6)	13(23.2)	14(46.7)	3(42.9)	66(35.5)

**Table 17. Reasons for expanding agricultural deduction limit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Reasons for expanding the agricultural subsidy limit	Farm scale expansion	15(41.7)	20(26.3)	27(48.2)	4(57.1)	4(36.4)	70(37.6)
	Increase asset size through incorporation	9(25.0)	9(11.8)	7(12.5)	1(14.3)	0(0.0)	26(14.0)
	Promoting equity with non-farm industries	2(5.6)	15(19.7)	6(10.7)	1(14.3)	2(18.2)	26(14.0)
	Activation of agricultural succession	6(16.7)	26(34.2)	13(23.2)	1(14.3)	4(36.4)	50(26.9)
	Etc	4(11.1)	6(7.9)	3(5.4)	0(0.0)	1(9.1)	14(7.2)

**Table 18. Respondent's role in farm management**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My role	Take initiative in farm decision making	15(41.7)	41(53.9)	35(62.5)	4(57.1)	8(72.7)	103(55.4)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14(38.9)	19(25.0)	9(16.1)	3(42.9)	1(9.1)	46(24.7)
	Employment types and labor provision	5(13.9)	13(17.1)	11(19.6)	0(0.0)	2(18.2)	31(16.7)
	Etc	2(5.6)	3(3.9)	1(1.8)	0(0.0)	0(0.0)	6(3.2)

**Table 19. How to receive compensation for participating in farm management**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Payment receipt cycle	Regularly	8(22.2)	21(36.8)	34(60.7)	12(40.0)	2(28.6)	77(41.4)
	Irregular	21(58.3)	20(35.1)	11(19.6)	14(46.7)	3(42.9)	69(37.1)
	Not received	7(19.4)	16(28.1)	11(19.6)	4(13.3)	2(28.6)	40(21.5)

2,64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Table 20).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역할과 대가 등의 문서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43명(76.9%)를 차지하고 있었다(Table 21).

청년농의 제3자 승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승계자가 없는 고령농가에 대한 제3자 승계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33명(71.6%)으로 조사되었다(Table 22).



**Table 20. Annual compensation amount for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unit: ten thousand won / 1 year)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Amount	2,110	2,020	3,270	3,650	894	2,640

**Table 21. Existence of documents including roles and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farm management**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Documentation	Yes	7(19.4)	9(15.8)	21(37.5)	4(13.3)	2(28.6)	43(23.1)
	No	29(80.6)	48(84.2)	35(62.5)	26(86.7)	5(71.4)	143(76.9)

**Table 22. Opinions on third-party succession of young farmers**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Third party succession opinion	Very necessary	15(41.7)	21(36.8)	16(28.6)	15(50.0)	1(14.3)	68(36.6)
	Necessary	13(36.1)	17(29.8)	19(33.9)	11(36.7)	5(71.4)	65(35.0)
	Normal	7(19.4)	16(28.1)	12(21.4)	3(10.0)	0(0.0)	38(20.4)
	No need	1(2.8)	3(5.3)	3(5.4)	0(0.0)	1(14.3)	8(4.3)
	No need at all	0(0.0)	0(0.0)	6(10.7)	1(3.3)	0(0.0)	7(3.8)

**Table 23. Difficulties in succession to a third party**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Difficulties	A lack of retirement funds	8(22.2)	6(10.5)	13(23.2)	5(16.7)	2(28.6)	34(18.3)
	Family opposition	14(38.9)	14(24.6)	13(23.2)	11(36.7)	1(14.3)	53(28.5)
	Fear of withdrawal from performance	9(25.0)	28(49.1)	16(28.6)	12(40.0)	3(42.9)	68(36.6)
	I don't know	5(13.9)	9(15.8)	14(25.0)	2(6.7)	1(14.3)	31(16.7)

**Table 24. Effects of third party succession participation after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

(unit: person, %)

Division		Food crops	Vegetables, fruit, special crops	Livestock	Distribution processing	Experience, etc.	Entire
Third party succession effect of corporation	Very effective	10(27.8)	13(22.8)	12(21.4)	12(40.0)	1(14.3)	48(25.8)
	Effective	13(36.1)	24(42.1)	19(33.9)	8(26.7)	2(28.6)	66(35.5)
	Normal	10(27.8)	18(31.6)	22(39.3)	8(26.7)	3(42.9)	61(32.8)
	No effect	3(8.3)	2(3.5)	3(5.4)	2(6.7)	1(14.3)	11(5.9)

제3자 승계시 애로사항은 이행철회 두려움이 68명(36.6%)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가족반대 53명(28.5%), 노후생활자금부족 34명(18.3%)으로 조사되었다(Table 23).

고령 농업인이 은퇴할 때 농업법인 설립후 제3자에게 승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 48명(25.8%), 효과적 66명(35.5%)이라는 긍정평가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였다(Table 24).

## 요약 및 결론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의 농업진입 확대 및 원활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농 영농승계 실태를 분석하고,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청년농 영농승계 실태

를 분석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영농승계방식은 가족내 증여 및 상속(56.5%)의 비중이 높았으며, 영농승계이유는 주로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능력 부족(87.6%)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승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중 농지 확보, 시설설비 투자 및 운영자금 부족, 증여 및 상속에 대한 법률정보 부족, 부모님과의 의사소통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창업농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충분성을 파악한 결과, 정착장려금, 영농기업승계 공제, 원스탑종합지원, 농지취득임대 알선, 주거지 알선 정책 등의 중요성은 높게 파악되었지만, 해당 정책들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영농승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농의 농업기반을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향후 은퇴농의 농지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75세 은퇴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118,562ha의 논과 167,834ha의 밭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고령농들의 농업기반을 어떻게 청년 농가에게 승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

영농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용 자산의 승계문제이다. 최근 농업은 영농범위가 확대되고, 영농규모도 확대되어 농업용 자산이 점점 대규모화되고 있다. 영농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영농승계 공제 한도의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공제 한도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가의 지속가능성별로 공제 한도의 차등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제3자 승계의 경우, 고령농의 농업용 자산을 승계농가에게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농지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영농승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자산의 승계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이양농에 대한 노후소득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청년농의 승계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 이양농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가칭)경

영이양농지연금지도 확대, 영농승계공제 한도 확대 등의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승계농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활정착자금의 지원,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용 증여제도의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 내 영농승계에는 세대간 갈등문제와 세제 등의 장애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자문, 정보 제공 등의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과 창농과정에서 해소하여야 할 재무, 세제 문제의 컨설팅 자문 지원 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승계과정의 가치관의 차이, 영농투자 의사결정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 지원도 필요하다. 이양자와 승계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중개디지털플랫폼 기능도 중요하다.

농업경영체의 법인화 촉진 등으로 경영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의사결정권의 배분과정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영농승계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농 창업생활자금의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의 법인화 정책을 중심으로 법인고용에 의한 창업농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농승계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영농승계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원활한 영농승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영농승계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영농승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즉, 영농승계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강혜정. 2017. 청년농업인-후계인력 육성방안.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년 하계학술대회 23-39.
2. 김기흥. 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추진방향, 충남연구원.
3. 나승일, 이용환, 김진모, 강경중, 김종우, 마상진. 2004.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4):1-19.
4. 마상진, 김남훈. 2019. 청년창업농의 성공적 정착에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42(1): 27-49.
5.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807.
6. 이소영, 이민수, 김진진. 202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특성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9(2):99-110.

7. 이춘수, 강창수, 양성범. 2019. 농가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승계에 대한 인식조사. 유기농업학회지 27(2): 111-132.